

민주평화당, 캐스팅보터 자리매김할까



바른정당과 통합에 반대해 국민의당을 탈당한 호남 의원들이 8일 민주평화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독자생존을 시작했다.

신(新)4당 체제에서 캐스팅 보터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불발돼 존재감이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텃밭인 호남 지역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날 출범한 민평당의 공식 의석수는 15석이다. 민평당 합류를 고민 중이라고 밝힌 이용호 의원과 박주현·이상돈·장정숙 등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까지 포함해도 19석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20석)을 충족하지 못한다.

단 민평당은 향후 손금주·박준영 등 호남권 의원 합류와 비례대표 출당 등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민평당은 지명직

최소 인원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불발 지방선거 결과 따라 민주당과 합당·통합도

최고위원 1명 등 당직을 영입인사와 합류인사 뒤으로 비워 두기도 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은 민평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비례대표 출당을 요구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의로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장정숙 의원 등은 '한집 두 살림'을 예고하고 있다.

민평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도 캐스팅 보터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는 최소 149석으로 재적의원 296석의 절반인 148석에서 1석을 추가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121석에 부여 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

을 합치면 총 128석이다. 여기에 민평당은 최대 19석을 확보해 캐스팅 보터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합당 또는 '흡수통합' 논의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민평당 의원 상당수가 민주당 주류인 친문계와 과거 대립각을 세운 바 있지만 제1당 유지와 정국 운영 안정성 강화(민주당), 총선 승리(민평당)이라는 명분과 실리를 위해 결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평당이 호남권에서 성과를 거두면 독자생존 또는 주도적인 합당을 타진할 수 있지만 패배하면 정치적 생존 기반을 상실한채 흡수통합 또는 개별 합류가 불가피하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국민의당을 방문, 안철수 대표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민주당·정의당·민평당)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진보·여대표 VS 보수·남성대표 체제 재편

민주평화당 대표로 여성인 조배숙 의원이 추대되면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주요 정당의 간판적인 대표 면면에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다. 법 진보진영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대표에는 여성이 올랐고 중도보수 및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남성이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추대에 대표와 민평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진보진영의 여성 대표들이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법보수진영 남성 대표다.

추 대표는 2016년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돼 8월이면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선출됐기에 1년 반 가량 임기가 남아있고 이번에 선출된 조배숙 대표는 8월 정기 전당대회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또 지난해 취임한 홍 대표는 1년 반 가량 임기가 남아있지만, 안 대표와 유 대표는 미래당 창

당과 동시에 새 지도부가 꾸러지기 때문에 지도부에 남게 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때문에 적어도 올해 8월까지의 '진보·여성대표 VS 보수·남성대표'의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법진보진영의 대표가 모두 여성으로 채워지는 바람에 이들 정당간 유대감이 다소 커지지는 않을까 기대가 나온다. 아무래도 서로를 향해 3대절을 하며 낮뜨거운 설전을 벌이는 모습 이 여성 대표간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지 않을까 전망에서다. 이른바 여성 대표 3인의 '신 트로이카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보수진영 대표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들 3명은 모두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사이인데다, 차기 대선을 향해 여전히 꿈을 키우고 있는 터라 앞으로의 관계에서도 그다지 매끄러운 사이를 유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탈당 및 무소속 선언

안철수 '미래 만날 것'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7일 탈당 및 무소속 진료를 선언했다. 안철수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손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홀로 광야에 남을 것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당초 손 의원은 지역구가 전남 나주·화순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평화당에 합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어디에도 입당하

지 않을 뜻을 이날 밝힌 것이다.

어쨌든 손 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당은 의석수가 23석으로 줄게 됐다. 민주평화당 합류자 외에 국민의당에서는 이용호 의원만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손 의원에게 "시간을 갖고 미래에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손 의원이 지역에서 여러 사정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손 의원이)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사직 6·13 지방선거서 광주시장 출마

이용섭(66)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사직서를 정식 제출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의 장관급 부위원장에 내정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부위원장은 7일 '일자리위원회'를 떠나면서 "이 글을 통해 '지난 9개월여 동안 국민들의 일자리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려야 한다는 절박감과 문재인 정부 성공은 일자리 정책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임했어 달려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국정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구축하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도 완성하는 등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1단계인 일자리 인프라 구축이 완성됐음을 국민들께 보고 드린다"며 "이로써 초대 부위원장에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다.

현안이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그는 "종합대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떠나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아직은 새 정부의 일자리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지만, 법정부 차원에서 2단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했다.

광주시장 출마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1단계 인프라 구축과 로드맵이 완성된 만큼 이제 대한민국 일자리정책의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모델을 고향 광주에서부터 성공시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 이 역시 새 정부 일자리정책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장 출마를 "성원해 준 고향 분들께 결초모은하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국제성장, 관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및 재선 국회의원(18, 19대)을 지냈다. 지난해 대선 이후 실시된 8번의 각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공식 출마선언은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공식 사퇴 시한(2월13일)에 맞춰 오는 12일경 있을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미래당 당명금지 결정 국민-바른, '국민바른'으로 돌아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당명인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양당이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청년 정당인 '우리미래'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우리미래'의 약칭인 '미래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당명으로 쓰고자 한 미래당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일 통합신당의 명칭을 '미래당'으로 결정했으나 청년정당인 '우리미래'가 동일 약칭을 선관위에 신청하면서 '미래당' 이름의 사용 권한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나 이날 선관위 결정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은 새로운 당명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다. 그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신당의 당명을 두고 공모한 결과 '국민바른'과 '미래당'으로 압축된 뒤 최종적으로 '미래당'으로 결정된 바 있다.

양당의 한 관계자는 "미래당 당명을 못쓰게 됐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결국 최종 후보에 올랐던 '국민바른'을 새 이름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폭넓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